

‘보물섬’에 검은돈 숨긴 한국인은 누구?

■ ‘조세 회피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명단에 오른

‘보물섬’에 감춰졌던 탈세 자료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주요 조세 회피처 중 한 곳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방대한 내부 문서를 통해 이곳을 거친 검은돈과 그 돈의 주인들이 차례차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해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서 약 250만개의 전자문서 형태로 담긴 BVI 문서를 분석하기 시작한 뒤의 일이다. ICIJ 등은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영국, 캐나다, 미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중국, 태국 등 전세계 부자들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지난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이 담겼다. 버진아일랜드는 영국 소설가 스티븐슨이 ‘보물섬’을

집필할 때 영감을 줬던 카리브해의 휴양지다.

해당국가가 ‘발등에 불’ 후폭풍 어디까지=5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옛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딸 딸이 BVI 문건에 거론된데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리아 이멜다 마르코스 마노복은 아버지의 정치 기반인 필리핀 일로코스 노르테주(州)에서 2010년 주지사에 당선됐다.

캐나다 상원은 전날(현지시간) 페이머 머튼트 상원의원의 남편이자 저명 변호사인 토리 머튼트가 BVI 문건에 오른 일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프랑스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친구이자 지난해 올랑드 대선캠프의 공동 재무담당자였던 장 오기

전세계 정치인·부유층 명단 줄줄이 등장

국제청 “한국인 은닉재산 여부 확인 중”

에도 ICIJ에서 제시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몽골에서는 전직 재무장관 출신의 국회 부의장 바야르흐트 상가사브가 이 일에 연루되면서 정계 은퇴까지 시사했다.

BVI의 관찰 책임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이 이 일을 빌미로 삼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각국 유력 정치인·유명인 신상 공개=BVI 문서에서는 각국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 부유층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이날 ICIJ 홈페이지에는 비디지

나 이바니슈빌리 조지아 총리가 새로 거명됐다. 보유 재산이 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바니슈빌리 총리는 2006년 BVI에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타신 전 태국 총리와 2008년 이혼한 포자만 나폼베지라,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아들 미르잔 빈 마하티르의 이름도 드러났다.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 국경 지역의 수비를 담당하던 호세 엘리세르 핀토 구티에레스 장군, 미얀마 옛 독재자 네 윈의 사위 아예 자우윈의 이름도 올랐다.

ICIJ가 조사중인 문서에는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약 12만개의 회사와 이에 관련된 13만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수록돼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제청, 한국인 확인 나서=국제청은 BVI에 재산을 숨긴 부유층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 국제청은 “ICIJ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 국제 미디어들이 협력해 발굴해 낸 재산 은닉자 명단을 압수하기 위해 다방면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청은 이 명단에 한국인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버진아일랜드에는 내국인이 투자한 기업 80여 곳이 있고, 국제청의 역의 탈세 조사 과정에서 이곳을 이용한 탈세사례가 몇 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F1 경주장 일대 모터클러스터 조성 ‘빨간불’

자동차 튜닝 사업 정부가 제동 걸어

수도권에 추진 의사 밝혀

전남도가 영남 F1 경주장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핵심기반 구축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제동이 걸렸다.

이에 앞서 이곳에 투자를 하겠다던 중국 기업도 투자를 철회하면서 F1 경주장이 중심인 서남해안관광레저사업(일명 J프로젝트) 삼포지구(241만5000㎡)의 개발은 더욱 더뎠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모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한 축인 자동차 튜닝 사업과 관련,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도 국가 차원의 자동차산업용 2개나 추진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F1 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과 자동차 튜닝 사업이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중복된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수도권 등 자동차 튜닝 수요가 집중된 곳에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튜닝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280억원과 지방비 120억원, 민자 80억원 등 모두 480억원을 들여 관련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남 이명박 정부에서 2차례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J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F1 경주장이 있는 삼포지구에 이 사업 유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데다 울산과 대구 등 기존 자동차 산업지역과의 사업성 중복, 튜닝산업 성장가능성 미흡 등의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경주장 주변에 조성할 모터클러스터 사업과 이 튜닝사업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다음달 결정을 앞두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유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J프로젝트 삼포지구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중국 중태건설그룹이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투자가 무산됐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종 시 불안 확산

중국서 6번째 환자 사망... ‘사람 간 전염’에 촉각

중국에서 H7N9형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중국 정부가 대응 수위도 한층 높이고 있다.

저장(浙江)성은 지난 5일 후저우(湖州)에 거주하는 64세 농부 장(張)모씨가 전날 H7N9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받은 뒤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H7N9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18명(상하이 8명, 장수성 6명, 저장성 3명, 안후이성 1명)이며 사망자는 상하이 4명, 저장 2명 등 모두 6명이다. 대만인 2명이 상하이와 장수지역을 들렀다가 복귀한 뒤 신종 AI 감염 의증을 보여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대만 보건당국이 밝히는 등 의심 환자로 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자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외적 총력전을 펴고 있다. 상하이시는 시내 농산물 시장에서 수거한 비둘기 샘플에서 H7N9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됨에 따라 시장 내 생(生)가금류 거래구역 폐쇄하고 이곳에서 거래되던 닭, 오리 등 전체 가

금류 2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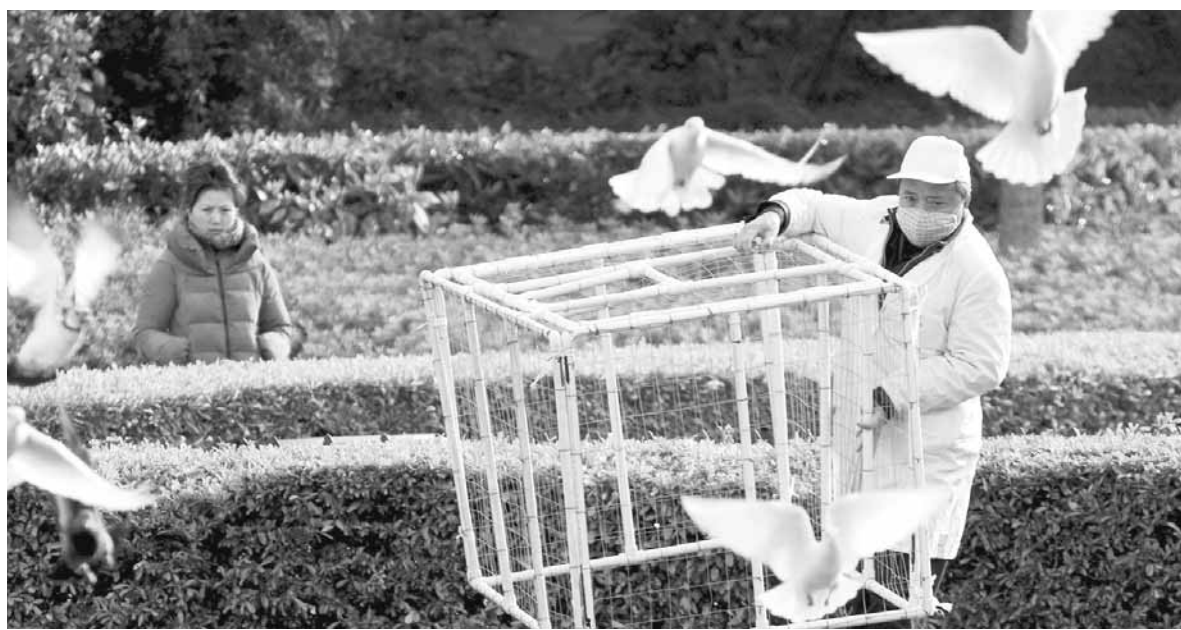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AI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변형됐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WHO는 H7N9형 AI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크게 염려할 것이 못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전염경로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예방법을 알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중국 보건당국이 병든 가금류를 만지거나 먹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반복하자 불신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만 자유시보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치사율이 10년 전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높다고 7일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지금까지 H7N9형 AI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18명의 중국인 환자 가운데 6명이 숨져 치사율이 33.3%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스가 한창 창궐한 2003년 5~8월 평균 치사율 11%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이다.

연합뉴스



“비둘기를 가둬라” 중국 상하이에서 6일 남자 2명이 신종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자로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내 전체 감염자 수가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상하이의 인민광장에서 한 위생 관계자가 AI 예방을 위해 비둘기를 잡아가두려고 새장을 준비하고 있다.

진곡산단 조성 순조... 내년 6월 준공될 듯

현재 공정을 26.5%

광주 진곡산업단지(이하 진곡산단)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6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6월 착공한 진곡산단의 현재 공정은 26.5%로 내년 6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총 3327억원이 투입돼 하남산단 인

근 191만㎡에 조성되는 진곡산단

지는 산업용지 223필지(108만㎡)를 공급, 광주의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현재 일부 분양된 부지에 현대모비스가 이미 들어서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현대위아와 JMK 등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공장 건축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조성공사가 끝나는 일부 부지를 분양해 자동차, 의

료, 정밀, 광학기기, 전자부품 등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연구개발(R&D) 특구지역인 진곡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진곡산단과 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172만3000㎡),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 3지구 산업단지(283만㎡)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신규산업단지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귀어 가구’ 급증

지난해 209가구 457명... 3년 전의 4.5배

전북 양식 등으로 역대 부자 대열에 합류한 어민들이 늘면서 전남지역 어촌으로 이사를 오는 ‘귀어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7일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 귀어 가구는 209가구, 457명(가구당 2.2명)을 기록했고 이는 2009년 47가구, 129명에 비해 4.5배나 늘어난 규모다”고 밝혔다.

전남 귀어 가구는 지난 2010년 87가구 208명, 2011년 177가구 38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군별로는 완도군이 80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진도군 65가구, 해남군 14가구, 고흥군 10가구, 신안군 11가구 순으로 수산업 소득이 높

은 완도군과 진도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활동력이 왕성한 20~30대가 58가구(28%), 40대가 56가구(27%), 50대가 51가구(24%)를 차지했다.

어촌으로 터전을 옮긴 사람들의 주종사분야는 김과 전복 양식 등 주로 소득이 높은 업종이었다. 해조류 양식이 44%, 패류 양식 33%, 어선어업 13%, 종묘 생산업 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귀어 전 직업은 자영업 33%, 생산직 20%, 사무직 17%이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23%, 광주 22%, 서울 21%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대한생명, 구.한미소방,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광-26%요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아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62)952-5577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활(당주름)묘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계림사거리 버스정류소: 54, 39, 87, 160, 419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 19, 83, 180, 184

4,19정류소: 55, 98, 151, 518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민속촌, 무진주

(구)련덕약국사거리

4호점 순천 연합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